

135도에도 살아있는 김밥 속 시한폭탄



연 윤 열 의
푸드톡

“날씨가 이렇게 춥고, 손이 시릴 정도인데 식중독이라니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급식 현장에 나가보면 조리원(여사님)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다. 겨울철 학교 급식실과 교실의 평균 온도는 대략 23~26℃ 범위다. 조리 종사원들과 아이들 입장에선 따뜻하겠지만, 세균 입장에서선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생육환경이 된다.

김밥은 간단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상하기 쉬운 예민한 음식이다. 식중독의 위험요소를 김밥 한 줄에 모아 놓은 종합메뉴라고 할 수 있다. 김밥을 구성하는 밥은 수분과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계란·햄·어묵은 단백질 덩어리이며, 채소는 세척과 절단 과정에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자동말이 김밥기계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손으로 직접 만든다. 정성은 많이 들어가지만, 오염원과 접촉 기회도 그만큼 많아진다. 그래서 김밥은 ‘맛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접

근해야 한다.

겨울철 김밥 식중독 사건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김밥에 들어가는 필수재인 계란 지단을 살펴보자. 살짝 깨졌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사용된 계란, 겉은 익었지만 속까지 완전히 살균되지 않은 지단, 김밥제조부터 섭취단계까지 이르는 시간이 관리 포인트다.

학교 급식처럼 대량의 김밥을 짧은 시간 내에 조리하는 경우 김밥은 새벽에 조리를 시작해서 실온에 대기, 이동, 급식장소 대기, 섭취과정을 거치는데 이 시간 동안 김밥은 난방된 공간을 떠돌며 점점 위험해진다.

밥 속에는 ‘바실러스세레우스’라는 내열성 포자균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포자 단계의 세레우스는 끓는 물 수준의 가열로는 완전 사멸이 어려워, 한 번 조리된 밥이나 지단 속에 그대로 버티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발아해 번식한다.

135℃ 고온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 녀석이 김밥 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다가 상온에 방치하거나 보온 보관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폭발하듯이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킨다. 즉, “한 번 익혔으니 안전하다”는 믿음은 김밥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데웠으니 괜찮겠지라는 착각도 금물이다. 학교와

급식현장은 늘 선의로 움직인다. 하지만 위생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편의점 김밥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유는 명확하다. 사람 대신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맛은 평범할지라도 사고 확율은 적어진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대표 간식인 김밥을 급식에서 없앨 필요는 없다. 다만, 만드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김밥용 원재료는 김밥전용 표준매뉴얼이 필요하다. 모든 급식소에는 급식 냉각 장비를 필수적으로 보급하고, 조리한 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시간·온도 자동기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영세한 소규모 김밥 전문점부터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급식장소나 행사장·체험학습용 김밥은 즉석조리 또는 전문 생산공정을 활용하고 손맛으로 평가하기보다 위생기록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김밥 한 줄에 정성만 있고 과학이 없다면, 식중독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겨울 김밥 사고가 사라지는 날, 우리는 비로소 식품위생 정책이 한 단계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사·IFTA사무총장·IFSIS 식량안보연구센터장

국회의원의 사익이 공적의무보다 우선돼야 하나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정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막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이며,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두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 중에 첫번째로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았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

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등에 직무관련자를 만나면 신고·회피·기피를 해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 가족도 포함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징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인·허가 등 권한이 있는 공직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접근해 영향력을 끼치는 걸 막고자하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국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은 수족처럼 부리는 보좌진들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듯하다. 공직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심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

근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의 권력이 ‘제왕적’이니 제도는 뒷전이다. 이에 정치개혁 이야기할 때 늘상 나오는 국회의원 권력 축소 방안이 적극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원들은 의원실에 급수별로 배정된 보좌진 9명의 채용과 면직을 결정하는 ‘제왕적’ 존재다. 보좌진은 ‘의원님’을 왕처럼 모시고 심기경호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관리, 심부름까지 하며 소모된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정무직)’ 9명의 보좌진을 의원의 꼭두각시로 키우는 것보다, 입법 연구와 성안까지 하는 인력(일반직 공무원)을 양성해 국회의원 눈치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당파를 떠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사안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30일 (음 11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작은 것에 집착 말고 일단 보고 진행. 48년생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자산. 60년생 고인 일은 부모님의 조언으로 해결. 72년생 호랑이도 자기 말 하면 온다는데. 84년생 백만 송이의 장미가 길에 널려있다.

37년생 기대가 커서 서운함도 크다. 49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61년생 이직이나 진로변경은 불리하니 심각하게 고민해야. 73년생 겁 없는 투자는 인생의 먹구름 동반. 85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으로 나서자.

38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50년생 남의 실수가 내게는 기회로 오지만 웬지 불편. 62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74년생 사람은 누구나 각각의 운명이 있는데 하늘의 뜻. 86년생 모난 돌이 정 많으니 자중.

39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입무를 열심히 하라. 51년생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다. 63년생 항상 소지품을 잘 챙겨라. 75년생 큰 흐름을 벗어나지 말고 움직여라. 87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40년생 시작한 일에 기대는 많으며 실리도 많아지는 하루. 52년생 사람과 연정이 생기니 말조심. 64년생 노안의 실속보다 내일을 중시하자. 76년생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도록. 88년생 자신이 승진하고 집안에 경사가 있다.

4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53년생 격한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65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를. 77년생 늦더라도 어떤 인생이든 꽃피는 시기는 있으니. 89년생 사량이 부족하다면 반례견을 절대 키워지 마라.

42년생 닭띠와의 거래는 순조롭다. 54년생 삼각관계에 간교함이 있으니 의지가 필요. 66년생 환경 좋은 곳에서 마음을 다스리자. 78년생 탁월한 실력이 나를 지탱하니 꾸준한 공부를. 90년생 길모습으로 만나는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43년생 동료에게 양보할 일이 생긴다. 55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67년생 이사는 해도 재활동으로 남비를 줄여가며 해야. 79년생 돌아봄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낸다. 91년생 남이 차린 밥상이 불편하면 먹지마라.

44년생 혈관질환이 의심되니 건강검진을 받자. 56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며 따라가다 빛만 진다. 68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80년생 선봉에 나서면 지갑은 열어야 하는데. 92년생 자식의 도움에 감사할 줄도 알아라.

45년생 마음이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57년생 안팎일을 자꾸 만들어 크게 벌리지 않도록. 6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세금을 미리 내자. 81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93년생 아니라고 생각할 때 바로 잡아라.

46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58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가 없다. 70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지혜를. 82년생 즐거움이 있어도 언제 먹구름이 올지 모르니 겸손. 94년생 급할수록 서두르지 마라.

47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59년생 결혼생활은 양보와 이해로 이루어진다. 71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83년생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력이나 건강 유의를. 95년생 비가 오면 내일의 풍요를 예고하게 되니 실력을.



김상회의四季 올 한 해, 고생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누구에게든 이 말만큼 어울리는 말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말 그대로 시간이 손살칼이 지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코 앞이다. 아주 큰 추위도 없었는데 올 연말은 예년보다 한결 을씨년스럽고 쌀쌀한 느낌이다. 지난 일 년 동안 겪어낸 일들이 혹독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사다난했다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식은 마음을 즐겁게 했고 팍팍해진 경제 사정은 어깨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았고 연말을 맞았다. 버텨내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애를 썼다. 그렇기에 서로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네야 한다.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다. 대단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어도 상관없다.

힘겨운 한 해를 잘 살아낸 것만도 훌륭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름 땀별을 견뎌낸 과일은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달콤하다. 가뭄과 장마를 이겨낸 곡식은 예년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준다. 일 년간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가슴 아픈 상처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쓰라린 생채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비옥한 거름이 될 것이다. 필자는 올 한 해 많은 사람의 아픔과 함께했다. 상담을 통해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줄 수 있어서 보람이 있고, 필자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도 그런 아픔을 덜어주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일 년간 필자의 글을 읽어주고 공감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와, 필자의 글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에게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해의 아픔을 거름 삼아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모든 분께 위안의 인사를 건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2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